
〈열녀박씨계약결혼편〉에 나타난 열녀 화소 수용 방식에 대하여

조혜란 (교신저자,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혜성 (제2저자, 전문대학교, 강사)

〈목 차〉

- I. 서론
- II.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의 콘텐츠별 비교 분석
- III. 여성 주인공 재현 방식과 열 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
- IV. 이 작품이 열녀를 활용하는 방식
: 남녀 주인공의 사랑으로 결구되는 열녀 화소
- V. 결론

국문초록

최근 드라마에서 〈열녀박씨계약결혼편〉, 〈밤에 피는 꽃〉 등 수절 과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열녀 화소가 부각되는 작품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그 중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은 동명의 웹소설(2020)을 드라마화한 것으로, 작가가 작품의 창작 배경으로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을 언급하였다.

이에 보고는 웹소설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의 서사를 중심으로 21세기 한국 웹소설, 드라마 등에 수용된 열녀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콘텐츠에서 열녀 화소를 수용하는 방식은 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기정사실로 간주하면서 열녀 화소를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는 사건의 시작이나 혹은 서사의 긴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 〈열녀박씨계약결혼편〉, 〈열녀함양박씨전〉, 열녀, 가짜 열녀 만들기, 웹소설, K-드라마, K-콘텐츠

1. 서론

최근 웹 콘텐츠를 보면 웹툰 〈신과 함께〉, 〈가담항설〉, 〈삼작미인가〉, 웹소설 〈설공찬환혼기〉,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등과 같이 웹 콘텐츠와 고전서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지닌 고전서사 원천이 풍부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축적되어 있기에 콘텐츠 생산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진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관련 현황을 검토한 연구¹⁾를 보면 원천 소재로서 활용도가 특히 높은 양식이나 작품들이 존재하는데²⁾ 비해 열녀 담론에 대한 관심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³⁾ 열(烈) 이데올로기는 조선시대에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열녀전, 수절 과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여 조선시대 여성 규훈서 연구, 열녀 관련 문학 작품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자들이 누적되고 있어⁴⁾ 이 또한 웹 콘텐츠 소재 원천으로 삼을 만한데 열녀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20세기 후반 몇몇 영

- 1)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57집, 우리문화회, 2018, 119~159쪽.
- 2) 원천 소재의 활용도가 높은 작품에 대해서는 정혜경, 앞의 글, 134~135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기존에 열녀를 많이 다룬 것으로는 영화 영역이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열녀를 다룬 영화가 제작되었고(노지승, 「20세기 열녀 담론과 한국 영화에 나타난 열녀 표상의 의미」, 『한국고전연구』48, 2015, 105~146쪽), 연암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에서 모티브를 얻은 소설 『열녀문의 비밀』(김택환, 전2권, 황금가지, 2005)이 〈조선명당정: 각시투구꽃의 비밀〉(김석윤 감독, 2011)로 영화화되었다.
- 4) 다수의 연구 및 서적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강명관, 『열녀의 탄생: 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들레개, 2009;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홍인숙, 『列女×烈女』, 서해문집, 2019; _____, 「朝鮮後期 列女傳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강영숙, 「한국의 열녀전 연구」, 영남대학교, 한국학 전공 박사논문, 2010; 김연순, 「朝鮮時代 女訓書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性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6; 박선희, 「조선 후기 ‘열녀담론’ 연구: 〈열녀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12; 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94; 최기숙, 「조선 후기 열녀 담론(사)와 미망인 담론(사)의 통계해석적 연구 - 17~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을 통해 본 현황과 추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5, 2017, 239~301쪽.

화에 그치는 정도이다.

근래 들어 드라마나 웹소설 등에서도 수절 과부, 열녀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눈에 띈다. 네이버 시리즈앱, 카카오 페이지앱에서 ‘열녀’를 키워드로 검색⁵⁾하면 웹소설 〈열녀박씨계약결혼〉(2020, 작가 김너울), 해당 웹소설의 각색 웹툰 〈열녀박씨계약결혼〉(2021~2023, 각색 안젤리크), 웹소설 〈열녀, 홍길동전〉(2017, 작가 몰도비아) 등이 나온다. 이외에 열녀나 수절 과부의 이미지를 차용해오는 콘텐츠로는 웹툰 〈그녀의 심청〉(2019~2022, 작가 seri:비완), 웹툰 〈녹두전〉(2018, 작가 해진양) 등이 있다.⁶⁾ 그런데 〈그녀의 심청〉에서 장승상 부인은 전처 자식인 장승상 아들에게 열녀가 되기 위한 자결을 강요당하지만 이를 거절하며, 전체 서사는 심청과 장승상 부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음으로 〈녹두전〉은 남자 주인공이 과부로 여장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변장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관심사와는 차이가 있다. 〈열녀, 홍길동전〉은 열녀문을 받으려는 시집에 의해 죽은 사람이 되어 버린 여주인공이 살아서 남장을 하고 밤에는 열녀문 착부자(着糞者)⁷⁾로 활동하며 열녀 제도에 강력한 반감을 표출하고, 왕에게 직간하여 새로운 열녀문 정령을 막는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서술 분량이 적고 서사의 중심은 인간 여성과 흡혈귀 남성과의 이종(異種)간 로맨스에 맞추어져 있어 열 이데올로기 관련 이야기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서사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중 웹소설 〈열녀박씨계약결혼〉은 본격적으로 열녀 문제가 들어가는 콘텐츠이다. 이 작품은 네이버 웹소설이 시행한 〈2019년 지상최대공모전

5)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는 웹소설과 웹툰 유통면에서 국내 1, 2위의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19세 미만 관람불가’ 작품은 일반적으로 폭력성, 선정성이 높아 대중성 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이외에도 웹툰 〈밤에 피는 꽃〉의 주인공은 15년째 수절 과부로 지내는 조여화이다. 하지만 해당 작품은 제작사가 원안을 제작하고 동일 원안으로 웹툰(글:풀이, 그림:정로,유나, 원작:베스·이샘·정명인, 제작사: 베이스 스토리, 2023~2024)과 드라마(MBC, 2024.01.12. ~ 2024.02.17.방영)를 제작한 작품으로 전술한 작품들과 창작 방식이 다르기에 비교에서 제외한다. - 카카오 페이지 앱. 웹툰 〈밤에 피는 꽃〉 작품 소식란(2024.01.28. 접속).

7) 작중에서 열녀문에 오물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한자 표기는 필자.

4라운드) (로맨스 장르)의 대상 수상작⁸⁾으로 혼인 첫날밤 남편을 잃고, 누군가에 의해 우물에 빠져 현대 서울에 타임슬립한 조선시대 이조판서의 딸 박연우가 조선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사랑을 이루는 로맨스 작품이다. 네이버 웹소설에서 정식 연재⁹⁾된 후 웹툰 연재, 드라마¹⁰⁾ 방영¹¹⁾까지 이어졌다. 웹소설 작가는 연암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에서 모티프를 얻었다고¹²⁾ 밝힌 바 있으며, 고전 작품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현대 배경의 로맨스 작품을 창작하면서도 열녀 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 작품을 대상으로 조선시대의 열녀 제도나 열 이데올로기가 21세기의 콘텐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은 웹소설, 웹툰, 드라마의 형태가 있는데 원작 웹소설과 웹툰, 드라마에서 발생한 변이를 비교한 결과 웹툰은 웹소설 내용에 충실하게 각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웹툰은 비교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웹소설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여, 21C 콘텐츠에서 열녀나 열녀비 등으로 표현되는 열 관념을 다루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조선시대 열 이데올로기가 지닌 여성억압적 성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적이기에 21세기의 콘텐츠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역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8) 대상 수상에 따른 부상으로 웹소설 정식 연재와 추후 웹툰 연재가 보장되었다.

9) 본편 연재기간: 2020.01.03. ~ 2020.06.09.

10) 드라마는 자체 최고 시청률 9.6%이며,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안은재, 「'열녀박씨' 박상훈 PD "해외 인기 비결? 모두 공감할 이야기" [N인터뷰]①」, 『news1 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5294542> (2024.01.28. 접속)

11) 방영: MBC, 2023.11.24. ~ 2024.01.06. 12부작 (금, 토) 오후 09:50

12) 김너울, 「<열녀박씨 계약결혼편> 드라마 종영 소감, 블로그 『시작』,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well23&logNo=223314705133&navType=by> (2024.01.28. 접속)

II.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의 콘텐츠별 비교 분석

웹소설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은 로맨스 장르의 작품으로 조선과 현대를 오가는¹³⁾ 조선시대 이조판서의 외동딸 박연우와 현대의 강태하가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담고 있다. 웹소설과 드라마의 주요 서사 단락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¹⁴⁾¹⁵⁾

[표 1] 웹소설과 드라마의 주요 서사 단락 비교

배경	순서	웹소설	드라마	비고 16)
조선 1	①		연우의 '호접선생' 활동과 조선 태하·천명!7)과의 우연한 만남	
	②	혼인 후 조선 태하 사망, 피랍된 연우가 무물에 던져짐	좌동	
	③		천명이 연우를 현대로 보냄	
현대 1	④	연우의 가짜 결혼식과 계약 결혼, 민혜숙과 강태민의 무통보 신혼집 방문	좌동	
	⑤		연우가 현대 태하 주관 행사에서 위작 〈화접도〉의 전시(민혜숙의 계약)를 막음	
	⑥	강 회장 생일 잔치에서 민혜숙과 마찰, 사월과 재회	좌동	
	⑦		연우가 주인 미상의 열녀비 발견	

- 13) 웹소설과 웹툰은 조선시대의 정확한 연도나 시점이 표시되지 않았다. 다만 웹소설에서는 연우가 살던 조선과 현대 서울이 300여 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68화)하였고, 드라마의 조선시대는 19세기라고 설정하였다. 현대의 시점은 웹소설은 2019년, 웹툰은 2021년, 드라마는 2023년이다.
- 14) 웹툰은 웹소설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고 인물 구조에서는 남자인 강태민을 여자인 강채영으로 바꾸고, 현대 태하의 이복 여동생인 제시카 강을 삭제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 비교적 원작 웹소설의 내용에 충실하게 각색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작 웹소설과 웹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를 진행한다.
- 15) 각 유형별 분석 대상은 웹소설 1화~80화, 드라마 1~12화이다. 드라마 방영 기간 중 공개된 웹소설 외전 5화는 연재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가된 내용이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 16) 비교의 △는 웹소설의 내용이 드라마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며 일부 설정에만 변경이

⑧	연우가 한복 브랜드 미담에 취직	좌동	
⑨	강태민은 감시를 위해 미담에 취직, 현대 태하가 결혼 사실을 밝힘 (미담 회식)	강태민은 연우의 업무를 도와줌, 현대 태하가 결혼 사실을 밝힘 (공식 행사)	△
⑩	연우·현대 태하가 연인이 됨 (미담 단합대회)	X	
⑪	민혜숙의 괴롭힘(괜히 일 시키기)	X	
⑫	연우가 자기 열녀비 발견(강 회장 집)	㉔으로 이동	
⑬	연우 부친의 기록 확인, 신혼 여행과 초야	X	
⑭	민혜숙의 괴롭힘(홍비서 포섭 시도) 과 강태민의 현대 태하 모친 사망의 비밀 폭로	X	
⑮	연우가 현대 태하의 심장병 인지	㉔로 이동	
⑯	민혜숙의 괴롭힘(회사 사람 이용) 과 별채에서 민혜숙 퇴출	X	
⑰	민혜숙의 과거·강태민 출생의 비밀 공개	X	
⑱	민혜숙의 괴롭힘(자동차로 치려다 포기)	X	
⑲	연우의 조선 태하 독살 의심	좌동	
⑳		민혜숙이 현대 태하의 트라우마를 자극	
㉑	㉓에 이미 나옴	연우가 현대 태하의 심장병을 인지	
㉒		현대 태하가 트라우마 고백	
㉓		민혜숙·강태민의 도움으로 1주년 쇼 성공, 박연우·현대 태하는 상호 호감 확인	
㉔		그룹 대표 민혜숙이 현대 태하의 해임안 건의(심장병)	
㉕		연우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던 현대 태하와 연애	
㉖	㉔에 이미 나옴	연우가 열녀비가 자신의 것임을 인지	
㉗	열녀비를 노린 조선 계모의 계약 드러남	좌동	
㉘		연우 어머니의 일기 ¹⁸⁾ 내용이 바뀜	
㉙	강 회장은 손자에 사과·민혜숙은	X	

		복수 결심		
	㉓	연우가 자신에게 남은 시간(15일) 인지	㉔로 이동	
	㉕	민혜숙의 현대 태하 살인미수	황 이사의 현대 태하 살인미수	△
	㉖	연우의 남은 시간 인지는 앞에 나눔	천명은 연우에게 남은 시간(15일) 통보	
	㉗		연우의 피랍, 황 이사는 강회장에게 복수	
	㉘		강태민의 설득에 민 대표가 경영권 다툼 포기	
	㉙	연우의 조선 회귀 결심 고백 및 연애	연우의 조선 회귀 결심 고백 및 초야	△
조선 2	㉚	혼례 전 시점에 깨어난 연우가 조선 태하 독살을 막고, 계모와 납치범이 처벌받음	좌동	
	㉛	연우가 종사관에게 열녀비 상소문을 청함	연우가 임금께 열녀 제도에 대해 격쟁함	△
	㉜	연우와 형식상 부부로 산 조선 태하 사망	연우와 친구로 산 조선 태하 사망	△
	㉝	자객을 만난 연우가 우물에 뛰어 들 ¹⁹⁾	자객을 만난 연우가 벼랑에서 뛰어내림	△
현대 2	㉞	연우가 현대 태하와 재회	좌동	
	㉟	결혼 및 출산	결혼	△
	㊱	연우가 적던 서책의 출토	X	

1. 웹소설과 드라마의 공통점

[표 1]을 토대로 살펴보면 웹소설과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 단락의 비중은 약 60% 정도이며, 이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일어난 경우임.

- 17) 천명은 시간관리자로 어릴 때 연우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회중시계를 준다. 드라마는 시계 바늘의 멈춤, 전진, 퇴감기 등을 통해 연우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 18) 연우 어머니의 일기와 연우가 만든 자수 보자기는 한복 브랜드 미담의 이미담 대표가 집안에서 내려오는 물건으로 소장하고 있다.
- 19) 웹툰은 웹소설의 서사 구조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는데 웹툰의 이 부분에서는 물속의 연우에게 조선 태하가 나타나 밝은 빛 쪽으로 가라고 이끌면서 연우의 행복을 기원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표 2] 공통 서사의 중심 내용별 구분

중심 내용
① 연우의 혼인 첫날 밤 조선 태하의 사망과 연우의 피랍 및 피살 시도
② 현대로 넘어온 연우가 능력을 펼치고 현대 태하와 사랑을 이루는 모습
③ 현대로 넘어온 연우가 열녀비를 위한 계모의 살인 계획 전모를 알게 되는 내용
④ 조선으로 돌아간 연우가 계모의 계락을 밝히고 열녀 제도의 부당함을 알림
⑤ 현대로 돌아온 연우와 현대 태하의 결혼

[표 2]에서 ①, ③, ④는 연우의 열녀비와 관련된 내용이고 ②, ⑤는 연우의 자아실현과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③, ④에 해당하는 항목은 웹소설의 약 28.5%, 드라마의 약 26.6%를 차지하며, ②, ⑤에 해당하는 항목은 웹소설의 약 35.7%, 드라마의 약 33.3%를 차지하고 있다.²⁰⁾ 원작 웹소설은 로맨스 장르²¹⁾이고 드라마 역시 코믹 판타지 로맨스²²⁾임을 고려하면 주인공 연우가 조선에서 양반가의 딸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펼치지 못했던 재능을 펼치고, 패관소설을 읽으며 꿈꾸던 운명적 사랑을 이룬다는 ②와 ⑤의 내용은 작품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라 하겠다. 즉, 웹소설과 드라마 모두에서 열녀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창작의 배경과 더불어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연우의 열녀비와 관련된 ①, ③, ④의 내용이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열녀비 관련 내용은 웹소설과 드라마에서 공히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

20) ②, ⑤는 로맨스 중 양쪽에 공통인 것만을 추출한 것으로 웹소설과 드라마에는 각각의 독립적인 로맨스 관련 에피소드가 존재하므로 작품 전체를 생각하면 로맨스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21) 김휘빈에 따르면 로맨스 소설은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다룬 장르이며 간략히 말해 협의의 로맨스가 보여주는 것은 여자의 욕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완벽히 충족되는 과정이다. 로맨스판타지는 판타지 장르에서 발원한 것으로 귀족 사회와 왕궁을 배경으로 한 궁정 판타지가 주를 이루며 로맨스소설과는 유사점이 많으나 기본 정서가 달라 독자층이 분리되어 있다(김휘빈, 『웹소설 작가 서바이벌 가이드』, 이마, 2017. 44~55쪽). 두 장르의 특성으로 보아 <열녀박씨계약결혼연>은 로맨스 장르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22) MBC, <열녀박씨 계약결혼연> 홈페이지 - 프로그램 소개,
<https://program.imbc.com/Concept/ThestoryofParksmarriagecontract>
 (2024.02.07. 접속)

주인공의 자아 성취나 로맨스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우물에 던져진 연우가 현대로 이동한 것은 연우가 현대와 조선을 오가며 겪는 모든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는 발단이며 그것은 기울어져 가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열녀비가 필요했던 계모 시어머니의 계략이 원인이었다.

웹소설 작가는 연우가 억울하게 죽은 조선의 여인들에 대해 고하는 장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²³⁾고 밝힌 바 있는데 웹소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로 열녀비를 받으려는 계모 시어머니의 모습이 서술되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살아난 연우가 열녀 제도의 부당함을 아뢰는 장면이 중요하게 그려진다. 계모 시어머니는 연우 살해 시도 후 우물에서 연우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다른 시신을 구해다가 연우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열녀비를 받고(웹소설 58화)²⁴⁾, 연우는 재판을 담당했던 종사관에게 상소문을 올려 달라 부탁하거나 임금의 행차를 막고 직접 격쟁을 하기도 한다. 웹소설에서 종사관을 만난 연우의 대사²⁵⁾나 드라마에서 격쟁하는 연우의 대사²⁶⁾는 열녀 정표에 따른 포상 때문에 원치

- 23) “...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쓰여진 박지원의 소설 〈열녀 함양박씨전〉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회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조선의 수많은 열녀들을 위해 연우가 뒷전계 고하는 장면을 썼을 땐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집필을 했습니다. ...” - 김니울, 앞의 블로그 (2024.01.28. 접속)
- 24) 드라마 9화에서는 연우 모친이 딸의 얼굴을 보려 하지만 시신의 얼굴이 심하게 상했다 하여 못 보았고, 연우 모친의 일기에는 시신의 손이 딸의 손이 아니었다고 적혀있다.
- 25)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렇게 목숨을 건졌으나, 제 일이 있기 전에…… 아니, 지금 이 순간마저도 누군가에 의해 희생당하는 여인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열녀문 때문에 억지 죽음을 강요받거나, 저처럼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겠지요.” … (중략) … “그동안은 모두가 쉬쉬하고 모른 척하였기에 묻혀온 일들입니다.” … (중략) … “부디 이 모든 일을 깊게 헤아려주시어, 이제 더는 억울하게 죽는 여인들이 없도록…… 주상전하께 아뢰어 주십시오.”(웹소설 74화, 이후 각주의 인용문에는 웹소설-드라마 여부와 회차만 표기)
- 26) “전하 부디 걸음을 멈추시고 저희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조선의 여인들이 전하의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 (중략) … “집안을 위해서 돈과 벼슬을 위해서 가짜 열녀를 만드려는 자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을, 하나 그건 스스로 지키려는 자들에겐 귀한 것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에겐 족쇄가 되기도 하옵니다.” “열녀” “그렇습니다. 그 뜻을 기려 상을 주는 일이 계속되는 한 전하의 선한 백성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고 그를 악용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아 더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굶어 살피 주시옵소서.”(드라마 11화)

않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여성들이 있었고, 그것이 암묵적으로 덮여왔음을 지적하여 열녀 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여성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중에서는 연우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열녀제도가 사라지거나,²⁷⁾ 열녀 정표 여부를 국가가 관리하고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는 왕명이 내려지는 장면(드라마 11화)이 등장한다. 이처럼 연우의 열녀비 사건은 웹소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사건으로 제시되며 작중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연우의 노력으로 인해 제도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2. 웹소설과 드라마의 차이점

웹소설에서 드라마로 전환되며 발생하는 변화로는 인물 구도의 변화와 인물의 성격 변화 정도를 찾을 수 있다.

1) 인물 구도의 변화

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인물 간 갈등의 이유를 바꾼 것이다. 즉 드라마에서는 박연우·강태하 대 계모 민혜숙이라는 웹소설의 대립 구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대립의 이유를 재산 상속에서 경영권 다툼으로 바꾸었다. 드라마는 현대의 민혜숙²⁸⁾을 SH서울의 현 대표이자 경영권을 두고 부대표 현대 태하와 경쟁하는 인물로 바꾸었다. 웹소설에서 갈등을 담당하던 시어머니 민혜숙이 드라마에서 민 대표가 되어 악역의 성격이 약화되자 드라마는 갈등 구도를 이루는 인물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웹소설에서 현대의 박연우·강태하의 가짜 결혼을 알고도 조력자를 자처했던 강 회장이, 드라마에서는 손자 태하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 연우를 위협하고 현대 태하를 감시하는 악역으로 변화였다. 그리고 작중

27) “요즘은 죽은 자아비를 따라 죽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님께서 정려 제도를 폐지해 열녀문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웹소설 77화)

28) 드라마의 민혜숙은 SH그룹 대표로 재직 중이므로 이후 웹소설이나 웹툰의 민혜숙과 구분하여 민 대표로 표기한다.

강 회장의 전생은 집안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며느리(윤씨 부인: 민 대표의 전생) 탓으로 돌리는 시아버지 강 대감으로 설정되었다.²⁹⁾ 새로운 악역의 등장으로 인물 구도가 변화되었으나 그 인물 역시 작품의 열녀 관련 서사의 강화에 기여한다.

2) 인물 성격의 변화

드라마에서는 강태하-박연우-도윤재의 삼각관계를 현대 태하-박연우-현대 태민의 삼각관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작중 도윤재의 비중은 줄고 현대 태민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연우가 회귀한 2차 조선에서도 연우가 도윤재의 전생인 종사관에게 상소를 부탁하는 것이 아닌 임금에게 열녀 제도의 부당함을 직접 격쟁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대 태민은 웹소설에서는 모친 민혜숙을 돕다가 나중에 변심하는 인물이었지만 드라마에서는 회사 경영권에 매달리는 모친이나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종종 연우와 현대 태하를 돕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극 초반에는 형수라며 갑자기 나타난 연우의 정체를 의심하지만 연우를 짝사랑하게 되면서 망나니 재벌 3세가 아닌 성실한 직장인이자 연우의 회사 생활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여 로맨스 드라마의 서브 남주인공이자 조력자로 변화하고, 나아가 한 여자를 사이에 둔 형제 대립 양상도 잠시 보인다.

드라마에서 성격이 변한 또 하나의 인물로는 전문 경영가로 성격이 바뀐 민혜숙을 들 수 있다. 웹소설의 계모 시어머니 민혜숙을 드라마에서는 현 SH서울 대표이자 회사를 현재의 상태로 키워낸 사업 능력을 갖춘 인물,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20·30대 여성들이 닮고 싶은 여성 CEO 1위로 선정된 인물로 묘사한다.³⁰⁾ 웹소설의 민혜숙은 매우 강력한 악역이며 그

29) 드라마 12회에서 재판 후 투옥된 윤씨 부인은 며느리 탓을 하는 강 대감이 던진 물건에 맞아 피를 흘린 것을 회상 후 연우에게 자신은 시키는 대로 강씨 집안을 위해 살았을 뿐이라며 “남편이 아픈 것도, 자식이 출세를 못하는 것도 다 내 부덕의 소치라고 하니 어찌겠느냐. 집안을 살리려면 무슨 짓이든 해야지.”라고 변명처럼 말한다.

30) MBC, 〈열녀박씨 계약결혼〉 홈페이지 - 인물 소개,
<https://program.imbc.com/Cast/ThestoryofParksmarriagecontract> (2024.02.08.
접속)

의 행동은 불륜, 서류 조작, 타인의 사망 기도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독자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드라마에서는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 소재는 제외하고³¹⁾, 민 대표를 회사를 확장하려는 강 회장이 며느리로 탐낼 만한 집안 배경을 가진 인물이자 회사를 사랑하고 경영 능력도 뛰어난 인물로 그렸다.

주인공 연우도 전문성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난다. 드라마 1화는 연우의 혼례 대신 정체를 감춘 채 ‘호접선생’이라는 이름의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연우의 옷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먼저 보여준다. 현대로 넘어와서도 연우의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자수 솜씨와 디자인 감각이 강조되고, SH서울 1주년 패션쇼에서는 연우의 의상이 피날레를 장식하기도 한다³²⁾. 드라마에서는 두 여성 인물의 전문성이 강화되나 전체 서사의 흐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I. 여성 주인공 재현 방식과 열 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

앞에서 웹소설 〈열녀박씨계약결혼편〉과 드라마 서사를 비교해 본 결과, 서사 전반에 걸쳐 드라마에서 일어난 변이가 부분적이며 여전히 열녀 관련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녀 관련 화소는 웹소설과 드라마 모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두 콘텐츠 공히 연우의 타임슬립이나 조선 계모의 계약 발각, 조선 2회차에서 조선 계모의 계약 저지 및 처벌 유도, 열녀 제도의 부당함 공론

31)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은 드라마에서 꾸준히 사용되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최근 방영한 다른 드라마들에 대해서도 불륜이나 혼외 임신 소재가 드라마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장수정, 「여성 서사 약진 속·불륜막장 한계 드러낸 안방극장」, 참고 온라인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18226/?sc=Naver> (2023.02.07. 접속)

32) 웹소설에서도 유명 디자이너 이미답이 연우의 자수 실력을 알아보고 자수 강사로 채용하고 제품 제작에 참여케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웹소설에 비해 드라마에서는 연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펼치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적인 면모가 더욱 강조되었다.

화 등 서사 전개 of 주요 변곡점에서 열녀비나 열녀를 둘러싼 내용들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며 서사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박연우·강태하의 주요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민혜숙의 경우는 성격이 크게 달라졌으나 ‘민 대표’의 전생 서사³³⁾는 변하지 않았다. 즉 드라마는 웹소설 서사에 준하는 전개를 보이며 드라마에서 일어난 변이는 부분적이기에 본고는 웹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열녀 관련 내용들에 유념하여 작품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 작품과 열 이데올로기의 상관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 주인공이 열녀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열녀가 차용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3장에서는 조선에서의 연우라는 여성 주인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재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은 조선과 오늘날의 한국을 오가고, 현대 연우의 서사에서 열녀 제도에 관한 연우의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도 있다. 그러나 열 이데올로기 내면화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나 열녀 제도와 관련한 사건들은 조선 연우 서사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3장은 조선에서의 연우에 초점을 맞춰 그 재현 양상을 살피되, 필요한 경우 현대 한국에서의 연우 부분도 같이 살피고자 한다. 이 작품의 서사는 ‘조선-현대 한국-조선으로의 회귀-현대 한국으로의 회귀’로 되어 있어 편의상 1차 조선, 2차 조선으로 구별하기로 한다.

1. 1차 조선에서의 연우 : 연애를 동경하는 양반 소저

- ① “좋은 날이러니? 나는 딱 죽고 싶은 날이다. 내가 얼굴 한 번 못 본 사내에게 시집을 가다니!” …어릴 적부터 몰래 읽어 온 염정소설과 패관잡서 속 운명적인 사랑. 그러한 것이 제게도 찾아오기를 늘 꿈꾸었다. 그래서, 어른들끼리의 혼담을 무르는 방법이 갖가지였다. 피병을 부려 자리에 드러눕거나, 자신

33) 민 대표의 전생 서사는 웹소설과 동일하게 가문을 위해 전처 자식과 며느리를 죽여 열녀비를 받으려 한 계모 시어머니의 서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에 대한 괴소문을 퍼트리기도 했으며, 증신을 서러 온 매파에게 뒷돈을 몰래 쥐 쫓아내고는 했다(1화)³⁴).

- ② “서방님, 족두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 족두리를 벗겨달라는 뜻이었다. 보통의 여염집 여인이었다면 그저 조용히 서방의 손길을 기다렸겠지만, 그녀는 달랐다. …연우의 집은 이조판서, 태하의 집은 고자 진사. 애초부터 밀지는 혼인이었는데 혼례 첫날부터 소박을 맞다니, 이는 가문의 수치였다. “저는 죽어도 이 혼인을 무를 수 없습니다.” 태하가 더 무어라 말하기 전, 연우는 얼른 제 머리의 족두리와 활옷을 벗더니 제 서방의 사모 관대까지 벗겨 버렸다. 그는 당혹스러운 눈으로 연우를 보았다. 조선의 평범한 여인이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아니던가?(1화)

예문 ①의 혼인 전 연우는 소설에 탐닉하고 염정소설을 즐겨 읽으면서 연애 결혼, 낭만적 사랑에 대한 욕망을 키운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이는 소설 독서를 경유한 욕망³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중매혼만이 가능했던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25살이 되도록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9번이나 혼담을 미룬다는 설정 역시 조선 연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문 ②에서의 연우는 소박을 모면하고자 스스로 신부복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신랑의 사모관대까지 벗겨 버렸다. 서술자도 이런 행동에 대해 ‘조선의 평범한 여인이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우의 과감함을 언급한다.

그런데 연우와 태하는 실은 10살 무렵에 서로 마주친 적이 있었다. 예문 ③은 76화에 등장하는데 이 예문은 혼인 전 연우와 태하의 인연을 보

34) 김너울, 웹소설 〈열녀박씨계약결혼편〉, 네이버 시리즈앱, 2020, 1화. 이후는 예문 끝에 ()로 회차만 표기한다.

35) 1화에는 이 밖에도 소설 독서를 통해 미남과의 로맨스를 동경하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이 더 묘사되고 있다. “듬직한 체구에 비해 살집이 없어 마른 얼굴이긴 하였으나, 염정 소설 속 온갖 미사여구로 묘사된 그 어떤 미남보다도 빼어난 용모였다. 이런 자가 평생을 섬길 지아비라니? 며칠 밤 새워 천지신명님께 기도한 것이 결국 이리 통한 것인가? 연우의 심장이 흥두깨질이라도 당하는 듯 쿵쿵 뛰기 시작했다.” (웹소설 1화, 밑줄 : 필자)

여주고 있다.

- ③ 멀리서 커다란 말 한 마리가 맹렬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맨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 계집은 그래선 안 된다. 조신하고 단정해야 한다. 말은 사내들이나 타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오기가 생기는 거야. 어째서 안 되는 건데?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거지? ……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보다 말을 더 잘 타게 됐어.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몰래 타고 나와야 하지만.” (76화)

병약하여 집 밖 외출도 못 하던 태하가 월담을 시도한 날, 그는 말을 타고 나온 연우를 만나게 된다. 태하와 대화를 나누던 중 연우는 자신은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수많은 ‘금지와 경계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에 오기를 느끼며 그 결과의 하나로 아버지보다 말을 잘 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 준다. 그러면서 태하에게 ‘그러니 너도 그 어떠한 것에 너를 가두지 말라’는 조언을 남긴다. 이 예문에서 연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적 관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며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태하에게 한 충고의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조판서 집안의 딸인 연우는 소위 유교적 여성 교양을 익혔을 것이고 남녀 간의 내외, 수절, 정절 등에 대한 내용 역시 중요한 학습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열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런데 위 예문에서 보이는 연우는 조선시대 여성 교육, 규훈서 등에서 강조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열 이데올로기는 원래 남편에 대한 의리, 수절을 강조했던 것인데 조선의 경우에는 부인뿐만이 아니라 혼전의 처자에게도 적용되었다³⁶⁾. 그런데 염정소설을 즐겨 읽고 연애를 경유한 혼인을 꿈꿀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 혼담에도 적용하여 파투를 내는 연우

36) 강명관, 앞의 책, 30~47쪽.

의 태도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열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한 인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조선 연우의 일화 중 열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의미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가 보이는 태도를 보도록 하자.

- ④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찌 멀쩡하던 네 서방이 혼넛날 초야를 치르던 중 저리 끔찍하게 간단 말이야! 이녀언!”…“그만하십시오. 멀쩡하던 서방이라니요?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 아셨는지 이별의 증서로 미리 제게 웃고름까지 잘라주시더군요. 하나, 한번 섬긴 지아비를 저버릴 수는 없는 법, 서방님의 3년 상은 제가 모두 치를 것이니, 저를 이리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1화)

예문 ④에서 연우는 첫날밤 신랑이 죽고 다음날 시어머니 민씨의 구박을 받게 되자 ‘한번 지아비는 영원한 지아비’라는 태도로 삼년상을 치르겠다고 선언한다. 이 장면에서 연우는 남편에 대한 의리를 다하는 부인의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수절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인다. 혼례 첫날밤에 남편이 죽었으니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생길 여지도 없었으나 한번 지아비는 영원한 지아비라는 그녀의 태도에서 우리는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張二夫)의 실천을 볼 수 있다. 혼인 전의 조선 연우는 열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형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반면, 혼인 후 연우는 수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을 은폐하고 자신을 구박하면서 책임을 묻는 시어머니에 대한 저항의 언술로 읽힐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³⁷⁾. 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녀의 언술은

37) 남편의 죽음을 목도한 후 연우는 낮이 나간 듯 멍하니 있었다. 그런 연우에게 시어머니는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휘둘리던 중 연우는 구석진 곳에서 죄인처럼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자신도 남편의 지병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번 섬긴 지아비는 영원한 저버릴 수는 없는 법’이라면서 ‘삼년상은 자신이 모두 치를 것이니 이리 함부로 대하지 말아 달라’는 연우의 대사는 그 장면 이후에 이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삼년상에 대한 언급은 시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면서 시어머니의 폭력을 저지하려는 연우의 결단에서 비롯된 언행으로 볼 수 있겠다.

평소 학습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살인 교사로 인해 연우는 곧 죽음에 직면했기 때문에 연우의 수절은 태도의 천명에 가까우며 실제 수절의 시간은 채 하루를 못 넘기고 매우 짧게 마무리된다.

이 작품에서 조선시대 양반 여성 박연우는 정절을 목숨처럼 여겨 죽음을 선택³⁸⁾하거나 남편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단지(斷指), 할고(割股) 등의 신체 훼손을 수행하는 열녀 형상과는 거리가 멀다. 남편의 삼년상을 치르겠다는 태도는 보였지만 그 다음날 납치되어 우물에 던져졌기에 수절에 대해서도 그 이상은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에서 보았듯 조선시대 연우의 서사는 열녀보다는 오히려 당돌하고 발랄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주인공 형상에 가깝다³⁹⁾.

2. 새조선⁴⁰⁾을 경험한 이후의 연우 :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각성한 주체

이 작품에서 조선 연우의 서사가 열녀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부분은 그녀가 살인 사건의 대상이 되면서부터이다. 앞의 예문에서도 보았듯 조선 연우가 시집간 가문은 진사에 머무른 채 벼슬을 못해 자칫하면 한미해질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⁴¹⁾.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시어머니 민씨는 이 가문을 일으킬 방법으로 열녀 포상 제도⁴²⁾를 역이용하고자 한다. 민씨는 전처 자식인 병약한 큰아들 강태하를 혼례 후 병사를 가

38) 예를 들어 임진왜란과 관련한 열녀 중에는 피난길에 배에 못 오르자 뱃사공이 손을 내밀어 도와줬는데 이를 외간 남자에게 손을 잡혀 절개를 잃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살을 시도한 여성의 일화가 전해진다.

39) 조선 연우가 열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1화 마지막에서 삼년상을 지키겠노라고 하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절 과부의 형상을 보이는 정도일 것이다.

40) 이 작품은 '조선-새조선(오늘날 한국)-조선-새조선(오늘날 한국)'의 순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새조선'은 낯선 시공으로 이동하게 된 연우가 그 공간이 과거의 조선 공간에서 시간 이동만 일어난 공간임을 인지하게 되면서 부른 표현이다. 이 제목에서의 '새조선'은 여성 주인공의 명명에서 가져온 것이다.

41) 민씨가 후실로 들어간 집안의 형편을 보면 남편은 진사시에 머물렀고 전 부인의 아들 태하는 병약했으며 자신의 아들 태민은 자질 부족으로 과거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42) 이옥경, 「조선시대 정절 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5, 45~48쪽.

장하여 독살하고 며느리는 살해 후 종사형 열녀로 꾸며, 열녀 포상 제도를 통해 가문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 음모는 성공하여⁴³⁾ 조선 연우는 열녀 호칭을, 그리고 시집에는 열녀비가 서게 된다⁴⁴⁾.

조선 연우는 이런 사실은 모른 채 새조선, 즉 현대 태하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호텔의 수영장에서 건져져 목숨을 구하게 된다. 6회에서 현대 태하는 가짜 결혼 때문에 연우에게 신부 역할을 부탁하고, 연우는 현대 태하의 집에 머무르면서 조선으로 돌아갈 방도를 찾자 하면서 둘의 동거가 시작된다.

- ① 연우는 사력을 다해 발버둥 쳤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보아도 턱 끝까지 올라온 물이 연신 목을 타고 넘어왔다. “으혁, 살려. 살려주세요 제발.” 새까만 물이 곧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러나 우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검은 사내는 조소를 지으며 차갑게 말했다. “값진 죽음이냐 생각하거라. 너의 죽음이 한 가문을 살릴 것이니.”…“으익!”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연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꿈이었구나.(6화)
- ② “산에서 봤던 그 비석……뭘였습니까? 대체 뭘였길래 그리 놀라셨던 거고, 정신까지 잃으셨던 거예요?”…“내가 죽었다.”…“내가 스스로 자결해 서방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열녀가 되었다.”…“그럼 그 비석이 열녀비였다는 말씀인 겁니까?”…“그건 저도 압니다. 허울뿐인 양반가에서도 열녀비만 받으면 벼슬길이 열리고, 그걸로 대대손손 체면치레까지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⁴⁵⁾.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신부 수업을 받을 때 그런 풍문을 들은 적이 있다. 열녀비를 받기 위해 수많은 여인이 정절

43) 연우를 우물에 빠뜨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자 다른 이의 시신으로 바꿔치기를 하여 며느리를 종사형 열녀로 정표를 받게 한다.

44) 시어머니 민씨에 의한 아들 독살과 며느리 살해 그리고 가짜 열녀 만들기애 성공하여 시집에서 열녀 정표를 받게 되는 내용은 58회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45) 웹소설 원문에서는 ‘않았습니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맥상 이 문장의 어미는 의문형이 되어야 설의법에 합당한 문장이 될 것이기에 본고에서는 ‘않았습니까?’로 본다. 58화의 제목은 ‘아주 먼 과거의 진실’로 이 부분의 서사는 조선을 배경으로 한다.

을 강요받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 내몰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들을 ……”(42화)

- ③ “예, 그러합니다. 민씨 부인을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에 나리께 간청을 드리려 합니다.…나리께서는 저와 같은 일로 억울한 죽 임을 당한 여인들이 얼마나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저는 불행 중 다행 으로 이렇게 목숨을 건졌으나, 제 일이 있기 이전에……아니, 지금 이 순간마저도 누군가에 의해 희생당하는 여인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열녀문 때문에 억지 죽음을 강요받거나, 저처럼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겠지요.…만에 하나, 목숨을 부지한다 한들 그걸로 끝이 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며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그 여인은 결국 벼랑 끝으로 떠밀리듯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겠지요.……그런 그들의 낮은 열녀비로도 위로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 모두가 그들을 칭송한다 한들 뼈에 사무친 한은 씻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74화)

예문 ①은 태하 집에서 살게 된 연우가 꾸는 꿈 내용이다. 연우는 꿈속에서 ‘너의 죽음이 한 가문을 살릴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 조선 연우였을 때는 우물 속에서 발버둥치면서 어렴풋하게 들었던 소리를 이제 꿈을 통해 명료하게 듣게 되지만 연우는 그 뜻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꿈으로 인해 연우는 조선에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사건에 다가서게 된다.

예문 ②는 강 회장 집에서 열녀비를 발견한 연우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이후의 장면이다. 이 예문을 통해서는 연우가 조선에서 자신이 우물에 던져진 내막을 알게 되는 것, 연우가 정절 교육을 받았고 동시에 부정적 인식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우는 자신이 조선에서 종사형 열녀로 죽어 열녀 정려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기절한 것이다. 연우는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조선에서의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 자살한 열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예문에서 흥

미로운 지점은 열녀에 대한 연우와 여종 사월⁴⁶⁾의 대화이다. 사월은 열녀 정려를 받기만 하면 ‘벼슬길이 열리고 대대손손 체면치레’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월이 열녀 정려에 대해 파악한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논의하는 열녀 포상의 내용과 비슷하다. 즉 여종도 열녀 포상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연우는 친정에서 교육을 받을 때 종사형 열녀를 둘러싼 부정적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종사형 열녀의 자발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조선 연우는 친정에서 정절 교육을 받았지만 정절을 둘러싼 조선 사회의 분위기가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③의 연우는 열녀문⁴⁷⁾에 대해 매우 의식화된 태도를 보이며 열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현대 한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 연우는 조선 태하를 독살 위기에서 구해 내고, 시어머니 민씨의 살해 음모를 밝힌 결과 민씨는 참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하여 열녀로 죽었다는 잘못된 자신의 과거는 바로잡았지만 연우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녀는 종사관에게 찾아가 남편이 죽은 여성들 대부분이 열녀문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고 또 살더라도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질시의 시선 속에서 결국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낮은 열녀비로도 위로가 안 되고 그 한은 칭송으로도 씻기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연우의 이 문제 제기로 인해 조선에서 열녀 포상 제도가 철폐⁴⁸⁾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어떤 여성이 당대 열녀 제도에 대해 이렇게까지 예각화된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게다가 공적 담론화까지 시도한 예는 찾아보

46) 사월은 연우의 여종인데, 조선에서 사월은 우물 앞에 연우의 꽃신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거의 반사적으로 우물에 뛰어들었고 그 후 주인과 여종은 각기 현대 한국의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다는 설정이다.

47) 열녀문이나 열녀비 등은 정표 정책에 따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열녀 호칭을 부여하게 되면 이에 부수하게 되는 요소들이다. 예문 ②, ③ 등에서는 열녀비와 열녀문을 거론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조정에서 호칭을 부여 받는 것, 즉 정표 정책에 따라 공식적인 열녀로 인정받는 것이다.

48) 각주 27) 인용문 참고.

기 어렵다. 그러나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 연우는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억지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거나 나아가 살해되기도 한다고 하면서⁴⁹⁾, 종사관에게 이 문제를 공론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 예문들을 보면, 조선 연우는 열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여 스스로 열녀가 되고자 하는 인물이 아님도 알 수 있다. 조선 연우의 형상화 방식을 보면 그녀는 오히려 열녀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사회적 억압, 즉 종사형 열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닌 여성 주인공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이 작품이 열녀를 활용하는 방식 : 남녀 주인공의 사랑으로 결구되는 열녀 화소⁵⁰⁾

1. 타임슬립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사건으로서의 열녀 만들기 살인 사건

이 작품의 제목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열녀’인 박씨인 것처럼 명명했지만 작품 속 여성 주인공 연우는 열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였거나 혹은 열행(烈行)을 수행한 열녀로 서술되지 않는다. 여성 주인공이 열녀 형상이 아니라면 4장에서는 이 작품에서 ‘열녀’는 어떤 방식으로 서사와 맞물리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작품에서 열녀 화소는 로맨스 서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이

49) 이 예문의 경우처럼 일상생활 중 종사형 열녀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은 경우는 아니나 병자호란에 대한 기록 중에도 이 같은 정황을 떠올리게 하는 사례가 있다. 김경정의 아들 김진표(金震標)는 자기 부인 박씨(朴氏)를 강박하여 자진하게 했고 어머니와 할머니에게도 죽음을 권했다고 한다. 또 정선흥(鄭善興)의 아내 권씨(權氏)의 경우도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회은군(懷恩君)에게 나아가 자신을 살려 달라고 했지만 그는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고 권씨는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한다. - 이금익(면), 『연려실기술』, 고전국역총서 6(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66, 252쪽.

50)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이 열녀 형상은 아니기에 4장에서는 열녀보다는 열녀 화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열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장인물과 관련하여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자 동력으로 활용된다. 조선의 연우와 오늘날 한국의 백화점 재벌 후손인 태하의 만남은 조선 연우를 종사형 열녀로 만들기 위한 시어머니 민씨의 계략 때문에 가능해졌다. 열녀 포상 제도를 통해 가문의 이익을 도모하려던 민씨의 살인 교사 사건은 이 작품의 로맨스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 사건으로 작동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임슬립이 일어나고, 젖은 소복 차림을 한 채 가진 것 없는 여성 주인공과 부와 재능, 권력을 지닌 남성 주인공의 조우가 가능해진 것이다.

연우는 현대 한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현대 태하의 필요가 결혼 유지⁵¹⁾였기 때문에 그녀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이야기는 재벌가 남성 주인공과 캔디형 여성 주인공 같은 연우의 사랑 이야기로 전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연우가 열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열녀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었다면 이는 현대 태하와의 로맨스가 진행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우는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남성과의 연애를 꿈꾼 여성이었고 열녀 포상을 노린 살인 음모의 대상이 되어 현대 태하를 만났기에 그 이후의 로맨스 서사는 개인성을 지니게 되었다.

2. 연우의 정체 확인 단서로 활용되는 열녀비

열녀 포상 제도를 노린 가짜 열녀 만들기는 남녀 주인공의 조우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그런데 현대 한국의 태하가 어느 날 수영장에서 건져 올려진 정체 모를 여성을 진정 사랑하게 되려면 상대 여성 인물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연우-현대 태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선에서 왔다는 연우의 주장에 대한 신뢰 여부이다. 이 작품에서 열녀 화소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조선에서 왔다는 연우

51) 물론 이때 태하가 요구하는 것은 할아버지 강회장을 속이기 위해 가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형식상 신혼 생활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전개되고 그 와중에 서로에 대한 이해, 감정 등이 싹트면서 둘의 관계가 연기에서 실제로 발전하게 된다.

의 정체를 확인해 주는 단서로 등장한다.

서술자는 연우의 인간적 자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한다. 3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온 것으로 설정된 연우⁵²⁾는 현대 문물에는 낯설고 서툴게 반응하지만⁵³⁾ 현대 태하와 태하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 등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이 태도는 긍정적 반응을 얻는다. 그런데 연우라는 인물에 대해 긍정하는 부분이 생겼어도 현대 태하가 볼 때 조선에서 왔노라는 연우는 여전히 신원이 불확실하며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인물이었다. 서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쌓여가던 중 현대 태하가 연우의 정체를 확인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열녀비가 발견된 것이다. 어느 날, 연우는 강 회장택 동산에 올라갔다가 열녀비를 보고 쓰러지고 만다⁵⁴⁾. 그 열녀비를 통해 그녀는 조선에서 자신이 종사형 열녀로 죽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고, 현대 태하는 연우가 쓰러진 이유를 묻다가 연우의 타임슬립을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연우는 이보다 앞서 호텔 수영장이 있던 곳이 조선에서 연우의 집터였던 곳이고, 친정에 있던 배롱나무가 호텔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장소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는 연우 편에서의 확인이고, 열녀비는 현대 태하가 조선 연우의 정체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된 기록인 것이다. 물론 그 열녀비는 조선 시 어머니 민씨에 의해 거짓으로 받게 된 것이었지만 그녀가 과거 조선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만은 공식적인 확인이 된 셈이었기 때문이다⁵⁵⁾. S호텔

52) 300년이라는 숫자는 68화에 제시되어 있다.

53) 오늘날 한국에 갓 나타난 연우가 현대 문물에 대해 보여주는 반응은 이 작품에 코믹 요소가 된다.

54) 그 열녀비는 '진산 강씨 집안에 시집은 함양 박씨 박규옥의 딸 연우의 열녀비'였다. 연우는 열녀비를 통해 가짜 열녀가 된 자신의 과거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자기 한 몸이 두 개의 시간이 겹쳐지는 걸 인지하면서 쓰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우의 열녀비 발견 사건은 41화에 등장한다.

55) 물론 이 외에도 호텔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시대 그림이나 문헌 등도 조선과 연우를 이어주는 단서로 등장한다. 연우가 그 그림을 보고 그것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가나, 또 도서관 소장 문헌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좌의정 벼슬도 하고 수를 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연우 편에서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보조적이며, 현대 태하가 확인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열녀비 비문으로 인한 것이다. 은노리개 역시 조선과 현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단서인데 이는 태하 보다는 연우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연우가 그 노리개를 통해 조선 태하가 독살 당했다는

이 소장한 그림, 은노리개⁵⁶⁾ 등도 그녀와 조선을 이어주는 단서들이지만 열녀비 내용이 조선 연우의 정체를 확인시켜 주었다. 74화에서는 연우가 다시 조선으로 회귀하여 과거사를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그 시각 서울의 태하는 어떤 끌림에 이끌려 본가 뒷산에 올랐다가 열녀비가 사라진 것을 보고 속으로 ‘해냈구나,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온다. 과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대 태하는 조선에서의 연우 서사, 조선 태하 등과 더 밀접하게 연루된다.

3. 낭만적 사랑 이야기로 견인되는 열녀 호칭

연우는 열녀로 그려지지는 않으나 스스로는 자신을 투사한 인물에 ‘열녀’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염정소설을 좋아했던 연우는 2차 조선에서 서책 한 권이 넘는 분량으로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쓰다가 현대 한국으로 재회귀하게 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79화). 이 소설은 S호텔에서 발굴된 작은 상자 속에서 발견되는데, 현대 한국으로 재회귀한 연우는 이 소설이 조선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것임을 바로 알아본다. 그녀는 조선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현재진행형으로 현대 한국에서 태하와 세 아이와 함께 쓰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소설의 제목을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이라고 한다(80화).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의 ‘열녀 박씨’는 바로 연우 자신이 스스로를 지칭한 것이다.

시어머니 민씨의 살인 교사로 가짜 종사형 열녀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된 연우는 조선으로 회귀하여 조선 태하와 자신의 죽음을 막고 과거를 바로잡은 후, 현대 태하를 만나기 위해 다시 현대로 재회귀한 인물이다.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은 조선에서부터 만난 연우와 태하의 인연, 300년 뒤 현대 한국에서 다시 이어 결혼 생활로 연결한 서사이다.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이 혼인 전 어린 날 조선 태하와 만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하게 되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크다.

56) 그림은 21화에, 은노리개에 대한 내용은 3화, 58화, 70화, 76화 등에 나온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 연우와 현대 태하가 만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설령 연우가 살해 음모를 당하지 않는다 해도 조선 연우와 조선 태하가 혼인하여 조선에서 서사가 단한다면 연우에게 잘생긴 남성과의 연애를 통한 결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로맨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아닌, 남녀의 연애 결혼이 가능한 다른 시공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연우는 현대 한국으로 타임슬립하여 조선 태하와 상동 관계인 현대 태하를 만나고, 그제서야 연애를 전제로 한 결혼이라는 사랑의 서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설 속 여주인공을 열녀로 호칭했다면 이때의 열녀는 조선시대 열녀 정표 정책에 따른 열녀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22회에서 사월은 연우에게 조선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현대 태하와 합방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연우는 ‘서로의 마음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초야를 못 치르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연우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⁷⁾. 이는 조선 연우가 얼굴도 못 본 채 결혼하는 중매혼 제도를 꺼렸던 이유와도 상통한다. 작품 후반부에 이르르면 현대 태하에 대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조선 태하를 거절했던 연우는 조선 태하 사후 시름시름 앓게 된다. 그러면서 그녀는 ‘멀리 두고 온 서방님이 곧 서방님이고, 서방님이 곧 그분인 것을’ 깨닫고는 조선 태하와 있을 때에 왜 이를 알지 못했는지 괴로워한다(77화). 현대 태하와 있을 때에는 조선 태하 때문에, 조선 태하와 있게 된 후에는 현대 태하 때문에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그 둘이 같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같은 마음과 몸의 문제는 여성 섹슈얼리티, 정절, 정조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

사실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의 수절이나 종사(從死)는 그녀들이 남편을 사랑해서 혹은 그녀들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지극해서 선택하는 것은 아

57)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열렬히 사모하게 될, ‘나의 낭군님’께만 자신의 모든 걸 드리고 싶다고……, 몸이 동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이 동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다.” (웹소설 22화, 밑줄 필자)

니었다. 남편의 애정이 어땠든 간에 이는 부인이 남편을 대하는 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열(58)은 남편에 대한 의(義)로 요구되던 것이어서 의무의 영역에 속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하여 열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했던 경우는 <춘향전>의 춘향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우는 양반 여성이었기에 춘향과는 다르지만 연우는 연애 결혼을 소망했던 양반 여성이었다. 연우의 경우 먼저 마음이 확실해야 합방도 가능한 것이며, 정서적 친밀감을 토대로 결혼에 이른 후에는 그 관계에 대한 헌신은 전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⁵⁹⁾. 춘향 역시 이도령을 사랑한 후에는 신관 사또를 포함한 다른 남성들의 유혹이나 강권에는 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연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즉 사랑을 전제로 한 배타적 관계에는 동의한다. 조선에 대한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연우 입장에서 보면, 이는 현대 태하에 대한 정조를 지키는 것, 곧 열(烈)로 번역 가능하겠다. <열녀박씨계약결혼년>의 ‘열녀’는 사랑을 전제로 한 배타적 관계를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과도 연동되면서 연우와 태하의 서사는 낭만적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열녀박씨’에서 박씨가 지키는 열(烈)은 둘 사이의 사랑, 즉 서로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열 이데올로기 수행에서의 열과는 차별화 되는 열이라 하겠다.

58) 원래 양반 여성에게만 요구되던 열 수행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평민이나 천민 여성에게까지도 민풍화 되었다.

59) 75회에서 77화에 이르기까지 조선으로 회귀한 연우가 조선 태하를 만나고 조선에서의 둘의 관계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서술된다. 이때까지는 연우가 현대 태하와 조선 태하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태다가 이미 현대 태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조선으로 회귀한 것이므로 연우는 현대 태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조선 태하의 마음을 거절한다. 이를 조선식으로 표현하자면 현대 태하를 사랑하게 된 연우가 현대 태하에 대한 열,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V. 결론

2023년 후반기부터 2024년 초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양반 과부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들이 연이어 제작되었다⁶⁰). 그 중 〈열녀박씨계약결혼〉은 본격적으로 열녀 제도와 관련하여 사건이 시작되고, 열녀 화소들이 서사에서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등장하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의 원작인 웹소설은 공모전 수상작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열 이데올로기는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인데 21세기 대중문화에서 연이어 작품들이 등장한 점이 흥미롭다. 본고는 최근 들어 나타난 조선시대 과부 수절, 열녀 제도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중 본격적으로 열녀 문제를 배경으로 서사화한 로맨스 웹소설 〈열녀박씨계약결혼〉에 수용된 열 이데올로기 양상에 대해 살폈다. 그 결과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 연우는 조선 연우 때부터도 열녀 정체성을 내면화한 인물과는 거리가 멀며, 작품 속 여성주인공 연우가 자신이 쓴 자전적 소설의 여성 주인공을 ‘열녀’라고 칭했을 때 이때의 열녀 또한 조선시대 열 이데올로기에서의 열과는 다른 것임도 확인하였다. 여성 주인공의 성격과 서사 속에서 활용된 열 이데올로기를 분석한 결과 이 작품에 수용된 열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측면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꺾진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열 이데올로기는 조선 당대에도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이미 있었으며⁶¹), 드러내 놓고 비판하지는 않더라도 한문 야담집에는 젊은 나이에 과

60) 이 무렵 〈혼례대첩〉, 〈열녀박씨계약결혼〉, 〈밤에 피는 꽃〉 등 수절 과부가 여성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드라마가 연이어 방영되었다.

61) 일례로 정약용은 〈열부론(烈婦論)〉에서 중사형 열녀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서 부득이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해 가능하지만 남편이 병들어 죽은 일상의 상황에서 굳이 자살로 남편을 따라 죽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기하고 있다. - 정약용, 『다산시문선』 권 11, 『열부론』,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60A_011_0_010_0490&solrQ=query%280%A0%E7%83%88%E5%A9%A6%E8%AB%96\\$solr_sortField%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280%A0\\$solr_secId%280%A0BT](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60A_011_0_010_0490&solrQ=query%280%A0%E7%83%88%E5%A9%A6%E8%AB%96$solr_sortField%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280%A0$solr_secId%280%A0BT)

부가 되어 친정에 돌아온 딸의 한숨을 안타깝게 여긴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딸을 재가시키고 걸으로는 종사한 것으로 꾸뻬었다는 이야기⁶²⁾가 실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판에서 향유되고 구비 전승만이 아니라 한문으로 수록되었다는 것 또한 당대 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터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과부의 재혼이 사회의 감시적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과부제가 금지는 갑오개혁 때 철폐되었지만 그러나 열녀에 대한 칭송은 이후로도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일제 식민지 시기에도 열녀 표창을 이어갔고 심지어 이승만 정권에서도 정책적으로 유지되었으며 6.25 전쟁 이후에는 늘어난 전쟁 미망인들에 대한 미흡한 복지정책의 보완으로 열녀 표창 제도를 유지했다. 1966년에 이르러서야 우리 사회에서 정부 정책에 의한 열녀 표창이 폐지되었고 여성이 재혼할 때 호주의 재가 없이도 재혼이 가능해지게 되었던 것이다⁶³⁾. 이는 열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62년에 나온 신상옥 감독의 <열녀문>은 열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담은 작품이며 그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제 의식 면에서 변주를 거치기는 했으나 열녀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그 이후 대중문화에서는 열 이데올로기나 열녀를 다루는 작품들이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⁶⁴⁾ 최근 들어 웹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다시 연달아 나타난 것이다.

조선조 양반 여성에게 잘생긴 남성과의 연애 결혼이란 실현 불가능한 꿈일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애정소설은 있었으나 만약 남녀 주인공

_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0\$solr_solrId%E2%80%A00GS_ITKC_BT_1260A_0110_010_0490 (2024.3.28. 접속)

62) 이런 이야기의 대표적 사례로는 조선 후기 문헌실화집 『청구야담』에 수록된 「연상녀재상축궁변(嬋孀女宰相囑窮弁)」을 들 수 있다. 작가 미상, 이강옥 옮김, 『청구야담 하』, 문학동네, 2019, 234~237쪽.

63) 식민지 시기에 이어 이승만, 박정희 정권까지 지속되어 온 열녀 표창 및 호주 재가 없이도 과부들의 재혼이 가능해진 역사에 대해서는 노지승, 앞의 글, 113~114; 119~120쪽.

64) 노지승, 앞의 글, 109~110쪽.

의 신분이 상층 신분, 양반이었다면 이에 걸맞은 이야기를 고민한 요소들이 보인다⁶⁵). 〈열녀박씨계약결혼편〉에 활용된 타임슬립이라는 서사 장치는 조선 양반 소저가 연애 결혼을 하게 된다는 설정이 개연성을 갖게 만드는 장치이다. 두 번의 살해 위기와 조선과 현대 한국을 회귀 및 재회귀해야 하는 연우의 서사는 고전소설의 문법으로 칭하자면 ‘여성 수난’에 해당한다. 연우는 조선 연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는데 비해 남성 주인공 태하는 조선 태하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조선 태하와 현대 태하가 같은 인물일 가능성에 대해 소략하게 서술된다. 이 작품에서 시간을 뛰어넘으며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완성해 가는 인물은 여성 주인공 연우이다.

본고는 21세기 콘텐츠에서 왜 다시 현상적으로 열녀가 소환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했는데 작품 분석 결과, 21세기 콘텐츠에서 열 이데올로기는 이미 비판의 대상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에⁶⁶) 열녀 관련 화소들을 통해 새삼 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세기 후반에 나온 열녀 관련 영화들이 작품 속에서 열 이데올로기 비판을 다루고 있었던 것과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의 열녀 관련 내용들이 서사를 추동해 가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열녀박씨계약결혼편〉이 과거가 아닌 미래로 타임슬립하도록 설정된 것과도 연관된다. 이 작품은 타임슬립과 회귀를 선택한 서사다. 소위 ‘회빙환’으로 불리는 세 가지 요소, 즉 회귀, 빙의, 환생이 차용된 콘텐츠들이 최근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65) 일례로 17세기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소운성이 혼전에 우연히 석씨 집안에 갔다가 그 집의 소저 석씨를 알게 된 후 혼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결혼을 중매혼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66) 〈열녀박씨계약결혼편〉에 이어 방영된 〈밤에 피는 꽃〉도 15년간 수절한 과부가 주인공이며 과부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의 열녀 정려에 대한 소망과 종사에 대한 은근한 기대, 과부 수절의 어려움, 정절에 대한 규훈서 학습 등의 내용이 등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회화화된 상태에서 웃음의 소재로 활용된다. 이 역시 열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치 평가 문제에서는 더 이상 질문하거나 회의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녀 화소를 끌어왔음을 보여주는 단서들이다.

인기를 누리고 있다⁶⁷⁾. 이 세 요소가 차용된 서사의 공통점은 대개 현생에서의 후회나 결핍을 과거로 타임슬립하여 현생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과거를 수정, 현생에서의 행복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열녀박씨계약결혼뎐>의 타임슬립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한다. 이 작품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의 타임슬립을 선택한 것은 1화에서 주인공 연우의 불만이나 결핍이 연애를 통한 결혼을 소망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회귀물이 과거로의 타임슬립을 통해 문제적 상황을 수정하여 현생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전개인데 조선 연우의 경우 과거로 타임슬립을 해서는 잘생긴 남자와의 연애나 연애결혼이 불가능해서 생기는 결핍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이유로 조선 연우는 자유연애가 가능한 미래로 타임슬립을 하도록 설정된 것이라 하겠다.

<열녀박씨계약결혼뎐>에 나타난 열녀 관련 화소들, 주인공의 타임슬립이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하는 것은 여성주인공인 양반 소저 박연우의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잘생긴 남성과의 연애, 연애를 경유한 결혼 등은 중매혼만이 정식 결혼으로 인정되는 양반 여성에게는 성취 불가능한 욕망이기에 불만족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로맨스 웹소설 <열녀박씨계약결혼뎐>은 이런 여성주인공의 결핍을 해결해 주는 장치로 미래로의 타임슬립과 두 차례에 걸친 회귀를 설정하였고, 그렇지 않아도 여성 억압적인 열녀 제도가 왜곡된 방식으로 범죄화하여 이증으로 여성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서사 전개를 통해 전체적인 서사 구조와 구체적인 사건 전개가 맞물린 이야기의 짜임새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사건을 추동하는 요소가 된 열 이데올로기나 열녀 화소는 여성 주인공 연우와 남성 주인공 태하의 사랑의 서사를 특별해 보이도록 만들어 주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사랑을 바탕으로 한 배타적 관계라는 설정이 긴박하게 읽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67) 조혜영, 「[비평] '재벌집 막내아들', 회귀·빙의·환생의 서사」, 『씨네2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1763&utm_source=naver&utm_medium=news(검색일: 2024.04.15.)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너을, 웹소설 〈열녀박씨계약결혼편〉, 네이버 시리즈앱, 2020.
안젤리크 글, 닷다 그림, 김너을 원작, 웹툰 〈열녀박씨계약결혼편〉, 네이버 시리즈앱
2021~2023.
고남정 극본,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편〉, MBC, 2023~2024.

2. 논문 및 단행본

- 강명관, 『열녀의 탄생: 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돌베개, 2009.
강영숙, 「한국의 열녀전 연구」, 영남대학교, 한국학 전공 박사논문, 2010.
김언순, 「朝鮮時代 女訓書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性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6.
김휘빈, 『웹소설 작가 서바이벌 가이드』, 이마, 2017.
노지승, 「20세기 열녀 담론과 한국 영화에 나타난 열녀 표상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48, 2015, 105~146쪽.
박선희, 「조선후기 ‘열녀담론’ 연구: 〈열녀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12.
이금익(편), 『연려실기술』, 고전국역총서 6(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66.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이옥경, 「조선시대 정절 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석사논문, 1985.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작자 미상, 이강옥 옮김, 『청구야담』 하, 2019.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화연구』57집, 우리문화회,
2018, 119~159쪽.
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94.
최기숙, 「조선후기 열녀 담론(사)와 미망인 담론(사)의 통계해석적 연구 - 17~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을 통해 본 현황과 추이」,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35,
2017, 239~301쪽.
홍인숙, 『列女×烈女』, 서해문집, 2019.
_____, 「朝鮮後期 列女傳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3. 인터넷 자료

- 김너을, 「〈열녀박씨 계약결혼던〉 드라마 종영 소감」, 블로그 『시작』,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well23&logNo=223314705133&navType=by> (2024.01.28. 접속)
- 안은재, 「'열녀박씨' 박상훈 PD "해외 인기 비결? 모두 공감할 이야기" [N인터뷰]①」,
『news1 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5294542> (2024.01.28.
접속)
- 장수정, 「여성 서사 약진 속···불륜·막장 한계 드러낸 인방극장」, 온라인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18226/?sc=Naver>
(2023.02.07. 접속)
- 정약용, 『다산시문선』 권 11, 「열부론」,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2024.3.28. 접속)
- 조혜영, 「[비평] '재벌집 막내아들', 회귀·빙의·환생의 서사」, 『씨네2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1763&utm_source=naver&utm_medium=news(2024.04.15. 접속)
- MBC, 〈열녀박씨 계약결혼던〉 홈페이지 - 프로그램 소개,
<https://program.imbc.com/Concept/ThestoryofParksmarriagecontract>
(2024.02.07. 접속)
- MBC, 〈열녀박씨 계약결혼던〉 홈페이지 - 인물 소개,
<https://program.imbc.com/Cast/ThestoryofParksmarriagecontract>
(2024.02.08. 접속)

Abstract

The Appropriation of Yeolnyeo in *Yeolnyeo Bakssi Gyeyak Gyeolhondyeon*

Cho, Hae-ran (corresponding author, first author,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Park, Hye-sung (second author, Sunmoon University, lecturer)

Movies with a critical view of the yeolnyeo(烈女, virtuous women who stayed loyal to her late husband) ideology began to appear in the late 1960s. Movies about yeolnyeo kept being produced until the 1980s but more or less disappeared afterwards. Recently, however, several K-dramas such as *Yeolnyeo Bakssi Gyeyak Gyeolhondyeon* (*Yeolneyo Park's Contract Marriage*) and *Bame Pineun Kkot* (*Night Flower*) have dealt with the yeolnyeo motif. Among them, *Yeolnyeo Bakssi Gyeyak Gyeolhondyeon* is based on a web novel of the same title which was published in 2020. The author mentioned that she got the idea for her novel from *Yeolnyeo Hamyang Bakssijeon*, an eighteenth century story about a yeolnyeo who killed herself after her husband's death. This paper analyzes how yeolnyeo narrative is appropriated in today's Korean web novels and dramas. It examines how these contents treat the critical viewpoint on yeolnyeo ideology as a *fait accompli* while using the yeolnyeo motif as a means to give an impetus to the story's development and to increase and maintain the dramatic tension of the story.

Keywords: *Yeolnyeo Bakssi Gyeyak Gyeolhondyeon*, *Yeolnyeo hamyang Bakssi geon*(烈女咸陽朴氏傳), yeolnyeo, making of fake *yeolnyeo*, web novel, K-drama, K-contents

논문 투고일: 2024년 03월 29일

심사 완료일: 2024년 04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4월 17일